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CONTENTS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Vol.45., MAY 2017

발행인 정기혜 기획총괄 안문영 편집 · 구성 선필호 · 김지혜 · 이정은 · 안미래

No.45

담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다

Tobacco – A Threat to Development

- ※ 출처
- WHO. (2017).
- Von Eichborn, S., & Abshagen, M. L. (2015).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2030년까지 UN 회원국이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협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하여 달성해야 할 빈곤 퇴치, 건강하고 질 좋은 삶, 경제성장, 불평등 해소, 생태계 보호 등 17가지 목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발생, 생산성 감소 등 경제적 손실 연간 1조 4천억 달러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는 중하위소득 국가에서 발생



담배 경작으로 매년 130억 평의 토지가 사용되며,

전 세계 산림의 2~4%를 감소



담배 경작 시 사용되는 많은 양의 살충제와 비료가 토지, 물 공급원을 오염

담배 경작자는 매일 궐련 50개비에 상당하는 니코틴을 피부로 흡수하여 담배 농부병(Green Tobacco Sickness)

담배는 **심혈관질환**, **암** 등을 포함한 **비전염성질환과** 조기사망 유발



빈곤층의 식량, 교육, 건강관리와 같은 필수 요소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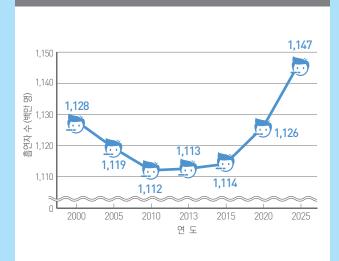
지출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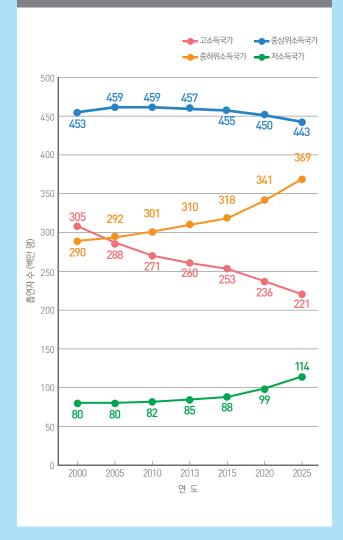
전 세계 담배제조로 인해 200만 톤의 폐기물



전 세계 흡연자 수 추이 예측 결과(2000-2025)



전 세계 소득그룹별 흡연자 수 추이 예측 결과(2000-2025)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 매년 약 600만 명

→ 2030년에 연 800만 명으로



MONTHLY UPDATES MAY 2017

이달의 정책



라오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및 건강경고 면적 확대

라오스는 이달 1일부터 자국 내에서 제조되는 모든 궐련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궐련은 포장지 앞면과 뒷면 75%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경고그림을 포함한 건강경고를 부착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2016년 5월 23일에 채택된 담배규제법(Law on Tobacco Control No. 1067)에 의거하여 시행 되는 것이다. 라오스는 경고그림을 도입하면서 비교적 큰 면적의 건강경고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2014년 9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 관계자들에 의해 작성된 요구사정 보고서(Needs Assessment Report)의 주요 권고 중 하나로서 논의된 것이다. 기존 라오스의 담뱃갑 포장 규제는 앞면과 뒷면 30%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것으로, 전 세계 건강경고 면적 순위에서 110위였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세계 8위로 크게 도약하였다. 라오스 국가담배규제위원회 파스 컹사네스(Dr. Phath Keungsaneth) 사무국장은 "라오스 정부는 이번 경고그림 시행을 통해 FCTC 당사국으로서 협약 제11조 이행 의무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특히 문맹인 대중의 흡연과 간접흡연의 건강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조치를 지지했다.



호주.

규격화 무(無)광고 포장 규제 정당성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잠정적 승소

호주의 담배제품 규격화 무(無)광고 포장규제 도입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WTO 고시가 이달 2일 분쟁당사국들에 배포됐다. WTO는 해당 고시에서 호주의 규격화 무광고 포장 도입에 무역협정 위반이 없음을 명시했다. 2012-2013년 분쟁해결절차를 거쳐 나온 이번 결정은 무역 관련 국제 규범에서 법적구속력을 갖게 되며, 분쟁위원회에서 제시된 해석은 선례로서 존중된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담배회사 로고를 금지했으며, 이에 대해 2012년 주요 담배생산국들이 불만사항을 제기하고자 WTO에 제소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했다. 제소내용은 회원국인 호주의 담뱃갑 규제조치가 WTO 국제무역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제의 시정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분쟁당사국인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4개국이 규격화 무광고 포장규제가 담배 브랜드의 고유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며, 지식재산권·상표와 관련한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제소에 대해 WTO는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리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고지한 셈이다. 이는 세계 담배규제 분야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며, 규격화 무광고 포장 도입을 통해 자국민의 흡연 억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의미 있는 판결이 된다. WTO의 최종 확정판결은 7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달의 정책에서는 최근 한 달간 담배규제 정책의 도입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소식을 전합니다. 세계의 금연정책을 가장 빠르고 정확 하게 모니터링하여 담배규제 분야의 최신 경향을 알아봅니다.



조지아, 금연구역, 담뱃값 포장 규제 등 한층 강화된 담배규제법 개정안 채택 이달 4일, 조지아 국회가 몇 년간의 논의 끝에 2010년 12월에 발효된 담배규제법 (Tobacco Control Act)에 대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거주 지역 및 교도소를 제외한 다른 실내공간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모든 유형의 담배 판촉과 온라인을 통한 담배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와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제품 구매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며, 담배규제 범위에 전자담배가 포함된다. 또한, 담뱃갑 포장의 건강경고 크기가 확대되고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EU)의 담배규제 지침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당사국으로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이행을 강화한 것이며, FCTC 비준 이후 담배규제 분야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이행 개선을 이뤄낸 것이다. 특히, 해당 개정안의 채택으로 인해 2018년부터 규격화 무(無)광고 포장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조지아는 중·저소득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담배규제에 관한 획기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라구나 시, 도시 전체 금연구역 지정 이달 9일, 라구나 시의회가 해변과 공원에서 시행 중인 흡연 금지 조치를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최소 30일 후 일반 보도와 골목, 자전거 도로, 주차구역 등 도시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로써 라구나 시에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는 주택과 자동차 내부 외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지난해 여름 담배규제 범위에 전자담배를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조치는 전자담배 제품에도 적용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100달러(약 1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3회 누적 위반이 있을 시 500달러(약 56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조례안은 해변에 버려진 담배꽁초들과 도시 내 간접흡연의 폐해 등에 대한 시민 다수의 의견으로 지난 1월에 마련되었으며, 시민 75%가 해당 조치에 동의를 표한 바 있어 시민들의 요구로 추진된 조치라 할 수 있다. 도시 분석가 라이언 홀레트(Rvan Hallett)는 "미국폐협회(The American Lung Association)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34개 도시 중에서 전반적인 담배규제 분야에 대해 낙제 점수를 받은 31개 도시에 라구나 시가 포함됐다"며 해당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70개 도시에서 일부 야외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8년 칼라바사스 시와 2014년 맨해튼비치 시가 도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MONTHLY UPDATES MAY 2017

이달의 연구



임신 중 완전한 금연과 흡연량 감소가 태아의 출생 시 체중에 미치는 영향 비교

Berlin, I., Golmard, J. L., Jacob, N., Tanguy, M. L., & Heishman, S. J. (2017). Cigarette Smoking During Pregnancy: Do Complete Abstinence and Low Level Cigarette Smoking Have Similar Impact on Birth Weight?. Nicotine & tobacco research, 19(5), 518-524. doi:10.1093/ntr/ntx033

임산부는 흡연의 건강 폐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도, 단순히 흡연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생아에 미치는 건강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산모의 흡연이 신생아의 출생 시 체중(Birth Weight)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임상 표본연구이다. 프랑스 금연 프로그램 연구에 참여한 최종 월경일을 기준으로 9-20주의 임신기간 동안 하루에 담배 5개비 이상 흡연했고 금연을 결심한 18세 이상의 산모와 신생아 381명에 대해 2차 분석을 실시했다. 산모의 흡연 행태와 신생아의 출생 시 체중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의 출생 시 평균 체중은 산모가 완전히 금연했을 때 3,417g(95% CI 3,098-3,738g), 하루에 담배 5개비 미만 흡연한 경우 3,081g(95% CI 3,003-3,159g), 하루에 담배 5-9개비의 흡연을 한 경우 3,043g(95% CI 2,930-3,157g), 하루에 담배 10개비 이상 흡연한 경우 2,831g(95% CI 2,596-3,157g)으로 나타났다(p=0.006). 산모가 완전히 금연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각각의 효과크기(Effect Size)는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의 범위(신생아 출생 시 체중에 대한 Cohen's d=0.54, 0.57, 0.85)로 나타났다. 혼란변수를 보정한 다변수 분석 결과, 금연 결심일 이래로 완전히 금연한 산모의 신생아 출생 시 체중에 비해 신생아 체중은 각각 하루에 5개비 미만의 흡연을 한 경우 228g, 하루에 담배 5-9개비 흡연한 경우 251g, 하루에 담배 10개비 이상 흡연한 경우 262g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all p≤0.02). 결론적으로 임신기간 동안에 흡연량을 줄이더라도 산모의 흡연은 태아의 출생 시 체중 감소와 연관성을 가지며, 이는 흡연자 산모들이 임신기간 동안에 완전히 금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이달의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발간된 담배규제 분야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거 기반의 담배규제 추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연구 내용과 주요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흡연율 감소 영향 예측 모형 : 영국의 '담배 없는 국가 목표(TFA)' 달성 시 공공보건과 경제적 이익 Hunt, D., Knuchel-Takano, A., Jaccard, A., Bhimjiyani, A., Retat, L., Selvarajah, C., ... & Brown, M. (2017). Modelling the implications of reducing smoking prevalence: the public health and economic benefits of achieving a 'tobacco-free' UK. *Tobacco Control.* doi:10.1136/tobaccocontrol-2016-053507

흡연은 여전히 암 질환의 예방 가능한 원인이며, 건강 불평등과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이 2035년까지 흡연 인구를 5% 미만으로 감소하겠다는 '담배 없는 국가 목표(Tobacco-Free Ambition, TFA)'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향후 보건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2035년의 흡연율을 예측하기 위해 횡단 흡연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선형 다중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 값을 산출했다. 해당 모형은 현재 영국의 흡연율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대조하여 평가되었으며, 미시적 시뮬레이션 방식을 사용하여 흡연과 관련된 질병 17가지에 대한 이환율과 비용을 예측했다. 분석 결과,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영국의 흡연율은 2035년에 10%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35년까지 총 97,300±5,300건의 흡연 관련 발병(흡연 관련 암 35,900±4,100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29,000±2,700건, 관상 동맥성 심장병 7,600±2,700건)을 예방할 수 있으며, 2035년에만 약 12,350건의 질환 이환을 예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건적 영향은 2035년에만 국가보건서비스(NHS)와 사회복지에 드는 직접비용 약 6,700만 파운드와 비의료비용 5억 4,800만 파운드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담배 '종반전(End Game)'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 흡연율 감소 계획에 있어서 정부가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2035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공공보건과 경제적 이익을 토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목표 설정과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MONTHLY HIGHLIGHTS MAY 2017

이달의 이슈

담배,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협

Tobacco – A Threat to Development



담배는 매년 약 600만 명의 사망원인이며, 심혈관질환, 암 등을 포함한 비전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담배가 야기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보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담배는 담뱃잎이 재배되고, 담배제품으로 제조되며, 흡연자에 의해 소비되고 버려지기까지 전 과정 속에서 다방면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담배규제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이달의 이슈에서는 담배규제 분야 주요 이슈를 선정, 국내·외 동향과 정책 현안을 다룹니다. 담배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국외 사례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국내 금연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2017년, 담배의 또 다른 위협에 주목하다

2017년 세계 금연의 날 포스터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와 담배규제 2015년 9월 25일, 전 세계는 인류의 성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맞이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바로 그것이다. UN 회원국들은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며 전 인류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와 세부이행계획에 합의하고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에 합의하였다. 경제, 사회, 환경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다차원적 위기 상황에 놓인 인류의 비전이자 전 세계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WHO가 주목한 것은 바로 담배이다. 담배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위협 요인이며, 2030년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담배규제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문제를 WHO가 2017년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 주제로 선정하고, 인류의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담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담배 및 담배규제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계적 확산에 수반되는 이윤 극대화 우선의 경제성장 논리가 인류 문명의 사회·환경적 균형을 파괴할 것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보고서 「Our Common Future」는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환경이라는 인류 문명의 터전 위에서 인류가 축적해 온 자산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개발 혹은 발전을 '경제성장의 관점에 국한'하거나, 반대로 발전을 '환경 및 개발 관점에 한정'하여 이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에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후 UN의 주도 하에 전 세계 공동의 번영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사회 발전의 가치로 점차 발전되어 왔다.

이때 미래의 필요를 고려한 발전은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호'의 3대 축이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것에 전 세계가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2030 SDGs 채택의 의의이다.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여 이들 국가들에서의 목표 달성에 주력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규모와 한계를 넘은 것이다. SDGs 17개 목표(Goal)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총 169개의 세부이행과제(Targets)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전 지역 모든 인류 공동의 번영을 아우르는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17개



※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17개의 목표 가운데, 보건 분야 이슈는 목표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의 복지 증진(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목표 3의 세부이행과제 중 담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2030년까지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30% 감축(3.4)과 모든 국가에서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이행 강화(3.a)이다. 이 중 WHO FCTC 이행 강화의 이행을 측정하는 지표로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이 설정되어 담배 사용의 감소가 SDGs 목표 3의 달성을 위한 주요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목표 3(보건)의 세부이행과제

3.1	2030년까지 전 세계 모성사망비를 70/10만 이하로 감소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아동의 예방 가능한 죽음을 종식시켜 신생아 사망률을 12/1000 이하로,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을 25/1000 이하로 감소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병의 유행을 종식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과 다른 감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
3.4	2030년까지 정신건강 증진과 비전염성질병 예방과 치료로 비전염성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1/3로 감소
3.5	마약과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3.6	2020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과 상해를 1/2 이하로 감소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을 포함한 성생식 보건 서비스에 보편적 접근 보장, 생식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
3.8	의료비의 재정위험으로부터 보호,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접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비용 지불가능한 필수의약품 및 백신 접근 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3.9	2030년까지 유해물질, 공기, 물,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기인한 사망과 질병의 감소
3.a	모든 국가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이행 강화
3.b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주는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약품의 개발과 연구 지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값싼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
3.c	개발도상국 의료 인력의 고용, 발전, 훈련, 유지를 위한 보건재정의 확충
3.d	국가적, 국제적 보건 위험 관리, 위험 감소, 조기 경보를 위한 모든 국가의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담배

SDGs의 목표 3이 세 가지 주요 가치, '사회발전- 경제성장-환경보호' 가운데 사회발전 중에서도 보건 영역에 속하는 목표인 만큼, 주요 건강 위해요인인 담배가 목표 3의 달성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담배는 SDGs의 다른 나머지 가치와 목표 달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매년 약 600만 명이 사망하며, 2030년엔 그 수가 연 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담배 사용은 심혈관질환, 폐질환, 암 등을 포함한 비전염성질환과 조기사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예방 가능한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간접흡연은 임산부와 태아, 아동에게 치명적이다. 유산 및 사산, 유아사망증후군, 호흡기 질환 등은 간접흡연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전 세계의 아동 사망 166,000명의 60% 이상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계된 점은 담배 소비가 야기하는 보건문제가 특히 취약한 인구집단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 쉽게 간과할 수 없다. 한편, 담배 소비로 인한 보건 문제와 달리,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담배 경작과 관련한 건강폐해이다. 담배는 특성상 매우 민감하고 많은 양분이 필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재배하는 과정에서 살충제, 비료 등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이는 토양, 대기, 수질을 오염시켜 담배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또한, 담배는 다른 작물과 달리 자체에 높은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유독하다. 담배 경작자는 담뱃잎을 수확하는 동안 피부를 통해 매일 궐련 50개비에 해당하는 니코틴을 흡수하며, 강력한 니코틴 중독의 한 형태로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근육 약화를 일으키는 담배 농부병(Green Tobacco Sickness)에 걸리기도 한다. 특히, 담배 경작지 혹은 담뱃잎을 공정하는 곳에서 일하는 아동은 니코틴 중독과 화학물질에 의해 신체 발달 장애 등 큰 피해를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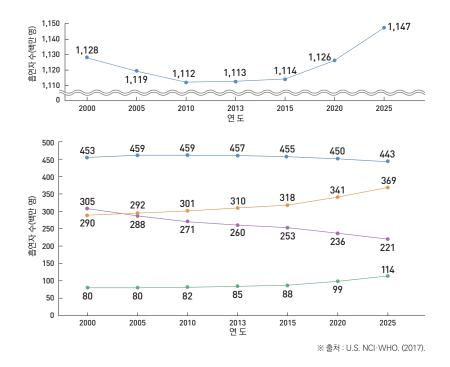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담배

흡연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직접적으로 의료비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 생산성 감소 등 간접비용을 야기한다. 2012년 기준 전 세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총 1조 4,360억 달러, 약 1,58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사실은 세계 각국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일 뿐 아니라 특히 전 세계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빈곤을 퇴치하는 데에 담배가 큰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흡연은 담배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늘릴 뿐 아니라 관련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 가용소득을 더욱 감소시킨다. 특히, 흡연 기인 질병의 50% 이상은 경제활동 가능 시기인 30~69세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 막대하다. 가용소득의 감소는 식생활, 교육, 의료, 의복에의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를테면, 2005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흡연자 가구들은 담배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생선, 육류, 우유, 계란을 구매하는 비용을 모두 합친 만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 있다. 담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인을 위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건강과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WH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흡연자 수는 2015년 11억 1,400만 명에서 2025년까지 11억 4,7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중하위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흡연자 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 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고소득국가와 중상위소득국가들과 달리, 소득이 낮은 국가들의 흡연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인 것이다. 게다가,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는 중하위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된다. 이는 담배가 국가 간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가 간 형평성 개선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흡연자 수 추이 예측 결과 (2000-2025)

전 세계 소득그룹별 흡연자 수 추이 예측 결과(2000-2025)





환경을 위협하는 담배

담배는 유독 가스와 폐기물을 생성한다. 담배 연기로 인한 대기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담뱃갑 및 꽁초로 인한 폐기물 오염이 발생한다. 담뱃갑 및 꽁초 폐기물은 극히 느린 속도로 생분해되는 합성 물질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로 만들어지며, 타르, 중금속, 니코틴, 농약 잔류물, 방향족 탄화수소 등 독성물질을 포함한다. 해당 독성물질은 배수 시스템을 통해 물 공급원을 오염시키며, 이는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꽁초는 도시에 산재한 폐기물의 최대 50%를 차지하며, 유럽의 경우 최대 60%까지 이른다. 또한, 담뱃불이 야기하는 화재로 직접적으로 산림을 파괴하는 것 외에도 담배가 경작되는 과정만 해도 매년 총 130억 평에 이르는 토지를 사용하여 전 세계 2~4%에 이르는 산림을 감소시킨다. 담배 경작은 담배 재배 지역의 생활 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담뱃잎 경작 시 사용되는 많은 양의 살충제, 비료 및 화학 물질은 강물을 통해 지하수로 침투한다. 방글라데시의 반다르반(Bandarban) 지구에서는 담배가 마타무후리 강(Matamuhuri River)을 따라 80km 이상에 걸쳐 재배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식량 재배를 위한 비옥한 토양은 줄어들고 강에 살고 있던 어류가 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기도 했다. 담배제품의 제조 과정 또한 환경오염에 기여한다. 담배는 다양한 종류의 담뱃잎을 혼합하고 잘게 썬 다음 여러 첨가물들을 섞어 1분에 2만 개비의 궐련을 제조하는 자동화된 기기를 거친다. 이 공정 과정에서 액체, 고체 및 가스 등 폐기물이 축적되며, 특히 그중 화학 폐기물은 가장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담배회사만 해도 800톤의 암모니아, 니코틴, 염산 등이 농축된 화학 폐기물을 만들어냈으며, 그중 360톤이 환경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담배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물이 2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담배가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폐해는 국내·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담배와 담배 사용이 우리 사회에 주는 위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담배가 재배되어 제조·가공 및 유통을 거쳐 흡연자에 의해 소비가 된 후 담배꽁초 등으로 버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담배가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호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 전반에 걸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모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담배를 규제해야 함은 물론, 담배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보건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담배규제 조치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입안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SDGs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담배의 수요와 공급 감소 전 과정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는 WHO FCTC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이유이며, 적극적인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연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MAY 2017



이달의 지표

이달의 지표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 규제 지표의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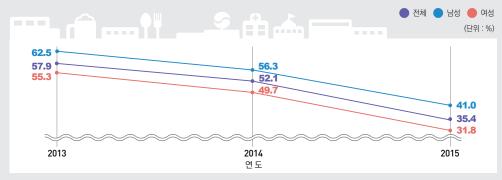


성인의 간접흡연 노출 현황 (2) - 공공장소

Exposure to Tobacco Smoke in the Adult Population: Public Place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현황은 규정된 기간 동안 공공장소 실내에서 타인의 담배 연기에 노출된 응답자의 분율로 정의하여 측정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 비흡연자의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노출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도의 감소폭이 전년 대비 큰 이유는 당해 1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현재 비흡연자의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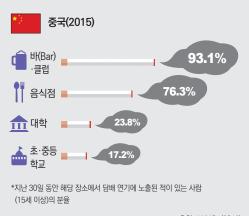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최근 7일 동안 공공장소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분율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6).

한편, 해당 지표에 대해 우리나라와 동일한 체계로 조사된 국제 자료는 없지만, 2016년에 각 국가가 제출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보고서를 통해 일부 국가의 공공장소별 실내 간접흡연 노출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대표되는 간접흡연 폐해를 막기 위한 국내·외 정책적 노력의 효과 및 과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출처: WHO. (2016)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 한국국제협력재단.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이행. KEI 포커스 제3권·제1호 (통권 제10호).

U.S. NCI·WHO. (2016). The Economics of Tobacco and Tobacco Control. National Cancer Institute Tobacco Control Monograph 21. NIH Publication No. 16-CA-8029A. Bethesda,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Cancer Institute; and Geneva, CH: World Health Organization.

Von Eichborn, S., & Abshagen, M. L. (2015). Tobacco: antisocial, unfair, harmful to the environment. Tobacco production and consumption as an example of the complex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Berlin: Bread for the World-Protestant Development Service.

WHO. (2016). FCTC Implementation database.

WHO. (2017). World No Tobacco Day, 31 May 2017. Tobacco - a threat to developm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구독신청

매월 금연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십시오.

홈페이지: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6월호 예고

6월호에서는 담배 경작자 등의 경제적 대체 활동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7조 및 제18조를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담배 경작자 등에 대해 필요하고 권고되고 있는 지원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